

그리스도왕 대축일

기도서 P. 481 A해

- 제1독서(에 제 34, 11-12, 15-17)
- 제2독서(고린전 15, 20-26. 28)
- 복음(마 태 25, 31-46)

숲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 사목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5098 3201

강론

“주님 저의 마음을 바칩니다”

김희남 신부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의 성업을 이루시고 만물을 당신의 치하에 예속시키시어 그 영원하고 공변된 나라를 지존하신 성부어전에 바치심을 기리는 날이다.

우리는 언뜻 왕이라 하면 호사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화려한 궁전에 살며 막강한 권력을 쥔 채 이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王中王 이라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태어날 때는 초라하기 짝이없는 말구유간에서, 죽으실 때는 비참한 십자가 형틀에서 일생을 마친 분이였다. 그분의 머리에는 찬란한 관도 없었고 화려한 옷도 으리으리한 궁전도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참 왕이시라고, 은 우주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다운 목자가 되시며 또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당신 법에 따라 심판하실분으로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눈으로서가 아닌 신앙의 눈으로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리스도도는 왕이시다. 그분은 참으로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셔야 할 분이다(묵시 5:12).

이러한 왕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때에는 왕이 원하는 것인 예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말씀하신다. “너의 형제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를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바칠 예물은 바로 이것이다. 황금도 아니고 권력도 지위도 아니요 값진 물건도 아니다. 우리의 예물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언젠가 읽은 “베제 왕의 전설”이라는 책의 내용이 생각난다. 탄생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떠났던 어느 왕은 자신이 가져간 황금도, 자기지방 특산물도, 옷도, 절음도 모두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버림으로써 잃어버렸다. 그러나 후에 십자가상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저는 주님께 바치려 했던 예물을 모두 없앴습니다. 저는 당신께 바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임금인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온전한 마음을 예물로 바치자. 우리의 왕은 반드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복자성당 보좌신부)



백년대제

요사는 왜 이리도 짜증이 나는가? 소식을 알려주는 보도 매체들이 전하는 소리에는 고달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 풀리지않는 경제사정, 연속 안타를 치고 출루하는 사고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고 귀를 막을 수도 없고, 눈을 감을 수도 없다. 마치 약육강식의 세상 같다. 남이야 어떻게 내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왜들 그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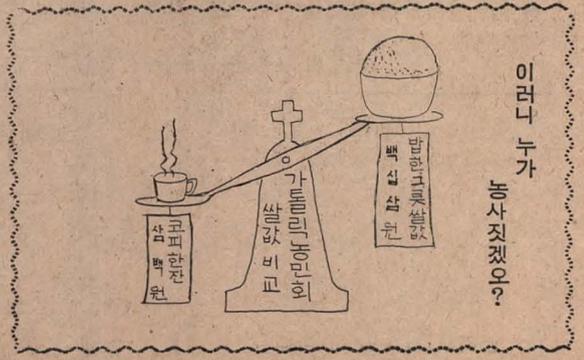
과학 문명의 발달은 세계를 좁혀 놓았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단축되고, 걸던 사람들이 하늘을 나르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도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 아니 생각조차 하려 들지를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가치관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굳이 가치관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만 이루자”는 것일 것이다.

어른들이, 소위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니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반항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한 반항이다. 그것도 없다면 우리의 세계는 희망이 없다고해서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내일 모레가 또 대학입학을 겨냥하는 학력고사 날이다.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타를 들춰내고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몸이나 흔들며 대자고 대학엘 가겠다는 것인가? 좋은 자리에 앉아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몫하자는 것인가?

교육을 백년대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백년대제이어야 하는가? 학교교육을 비롯해서 어른들의 처신이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교육수단의 하나인 매스 미디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국영방송은 값비싼 댓가를 치우면서 발전 한국의 모습이나 보여주어야 하는가? 국제 가요제도 좋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교육 시설의 부족함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숲정 이 산책



□ 농민의 소리 □

『농민은 쌀농사에서 밀지는데, 왜 양특적자를 농민에게 돌리려 하는가?』

매년 쌀 수매가를 결정할 때면 정부는 양특적자 때문에 높게해 줄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 양특적자가 마치 농민보호에서 생긴 것처럼 들먹인다.

그러나 사실은 양특적자의 대부분이 생산자를 위해서 보다는 도시 소비자 보호에서 발생한 것이다.

양특적자가 농산물값 보장 때문에 낮다고 주장하는 당국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농민과 관련해서 생긴 양특적자는 1/5에 불과하다고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양특기금이 부담이 된다면 국내 가격보다 싸게 도입해서 남은 방대한 이익금으로 양특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적자 누증은 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발생한 양특적자를 농민의 탓으로 돌리고 농민의 정당한 생산비를 희생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과탄에 이른 오늘의 농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잘못된 국민경제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생산자로서 수매가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할 농민은 수매가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어 왔고, 저임금을 위한 저곡가 정책에 밀려 주는대로 받아왔을 뿐이다.

한톨의 쌀도 농민의 피땀의 결실이다. 따라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최소한의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남들처럼 살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산비는 보장되어야 한다.

해마다 농민은 정부의 안이하고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 수입과 저곡가 정책에 의해 쌀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적자농사를 지어왔다.

농민회에서 7년동안 쌀 생산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 수매가와 비교했을때 75년은 720원 적자였고, 76년은 3,954원, 77년은 6,484원, 78년은 15,178원, 79년은 18,300원, 80년은 25,307원의 가마당 적자를 본 것이다. 이같은 적자농사로 인하여 농민은 자기 노임이나 겨우 뜯어먹는 농업 노동자 상태로 되어 땅의 이자, 자본이자의 보장은 까마득한 실정이다.

이와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과연 앞으로 누가 땅을 가꾸어 쌀을 생산할 것인가?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하는 농민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공장에서 나오는 물품을 먹을 수도 없고 죽어가고 말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삶의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자.

〈가톨릭 농민회 전주교구 연합회〉

당신의 팔을 펼치소서

조 창 환

어머님, 지금 가을은 깊어
서리 물든 언덕길에 山菊花 피고
세상의 만남이 새롭게 빛나
눈 뜬 자의 숨결들이 설레입니다.

오늘 저녁은 고요의 바다
날새들도 깃을 접어 동지를 찾고
소리와 빛깔들도 고개 숙일 때
두 손 모아 우러르는 당신의 눈빛
평화롭고 자애롭고 또 그윽하여

수고하고 고통받는 아픈 상처와
병들어 신음하는 모든 육체와
억눌려 통곡하는 모든 영혼이
햇빛 같은 은총으로 낮게 하소서.
바다같은 평화 속에 살게 하소서

다만 어지러운 티끌로 쌓여
우리 가슴 맺힌恨이 강을 이룰 때
마리아여, 이 가슴을 씻어 주소서
다만 어지러운 탐욕과 시기,
미움과 갈등으로 산을 이룰 때
마리아여, 이 세상을 굽어 보소서

어디선가 새 벌들이 태어나는지
어디선가 사랑으로 움터나는지
어디선가 대죄인이 참회하는지
어디선가 기쁨으로 노래하는지
어머님, 당신계신 알고 계시니
두 팔을 펼치시어 받아주소서.

1981년 10월 마지막 날

우리의 도움이신 聖母마리아께 바치는 거룩한 로사리오의 밤에.

(파티마 분당)

□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2628

범피또(덕배)·이 마리아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워크엔드
Weekend



버킹검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 4 4 5 1

유 율 리 안 나

털실·매듭·스킬·리틀포인트·완구
동양매듭·양초공예 수감합니다

데레사 수예점

많이 애용해 주세요

서·데레사

전주시 중앙동 1가 48-1

(홍빈관 앞)

☎ @ 5 0 8 1

ECCLESIA

□ 제4지역 중·고생 성가 경연대회 열려

지난 11월 15일, 제5회 전주지역 중·고생 성가 경연대회가 제4지역 중·고생 연합회(지도신부 박인호) 주최로 중앙 성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때 아닌 늦가을 비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의 학생들이 얼굴을 맞대고, 각기 연마한 솜씨들을 드러내고 겨루어, 성당 안을 축제의 열기로 가득차게 했다. 제1부에서는 성가 합창, 2부는 무용과 연극, 중창등의 순서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고교생의 참여가 대단했는데, 시간에 쫓기는 학생들이 저녁 식사도 거르면서 본당간의 일치를 도모하고, 단합된 자기 본당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연습이었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이날 대회의 최우수상에는 중앙, 2위 전동, 3위 숲정이 본당이 각각 수상했는데 참가 본당 전부에게 상품이 주어졌다.

두 본당의 불참으로 모두들 서운한 표정이었으나, 다음 대회 때는 전 본당들이 참여 하리라는 기대 속에 성가를 통한 찬미와 일치의 삶을 약속하며 잔치를 마쳤다.

□ 사무장 연수회 개최

본당 선교의 주역, 사무장님들이 오랫동안 다시 자리를 함께했다. 11월 17일~18일 양일간에 걸쳐 가톨릭 센터에서 갖은 사무장 실무교육- 어느때 보다도 진지한 모습에 익히고 닦으려는 열의가 꺾차 보였다. 서로의 경험과 문제점을 나누려는 한 밤의 대화는 그야말로 피로(疲勞) 젖은 심신을 확 풀어주는 듯 했고. 본당 사무행정과 선교운영의 성패, 그리고 발전의 향배가 그 어께에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본당의 총무, 그러기에 늘 보다 새롭고 실질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모르면 뒤지니까... 유감스럽게도 본 교육에 임하지 못한 본당들은 스스로를 위해 이 번 더욱 관심 기울이고 공동대처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함께 열려해 본다.

사무장님들의 수고에 새삼 감사드리고 전투를 벌여마지 않는다.

□ 교창에 새 수도회 진출

가난한 오지(奧地), 작고 힘든 고을이라 팽개쳐 나간 아늑한 동산 하안집에 다시 흑의(黑衣)의 천사들이 들어간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임의 뜻, 선교의 대명을 수행하려 출전(出戰)하듯 고결하게 임한다는 「사르뜨르 바오로 수녀회」-전도축복을 지레 빌어드린다. 부임(佈任)일은 12월 1일.

교창 본당은 그간 살을 에는 듯한 운영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주님 향한 열과 정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정을 몰아 먼지진 수녀원을 새로 단장하고 하나 하나 살림살이까지 온통 정령여 마련해냈다. 뿐 아니라 주 안에 흐르는 정은 이웃 전주를 비롯 이리, 김제 또 멀리 함평에서까지 축복의 선물이 담지, 정말 사랑꽃이 한아름 피는 것만 같다. 아나과 원님의 고을 교창에 복이 있으라!

오늘을 맞기까지 정을 주고 힘 기울인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M. B. W 임원 도일(渡日)

일본 M. B. W회의 초청으로 교구 김준호 신부님과 김용환, 김인협 임원이 11월 19일 일본 방문길에 나섰다.

이분들은 약 15일 정도 교회 공동체 육성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일본 교회들을 방문, 접촉을 가진 뒤 12월초에 귀국할 예정이다.

요심이 (434) 김병오

상당수준의 교직원(체르니, 쏘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을 시도 반주해낼 수 있는 제미 크라식 반주법의 희소식

제즈·크라식

피아노 반주법

바이엘 이상 소화자면 6개월 연습이면 명곡·가요 등을 화음 리듬 가미해 구성진 반주 해낼 수 있는 길

성악 :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동지점 앞

▲ 허약한 분, 병약한 분에게! 고단위 영양식품

※ 편리하게 선택하세요

수도원 최 노렌조 수사님의 제조로 효력이 아주 좋습니다.
(엑기스·분말·캔셀·토롱탕 진액)

(성모병원) 토 롱 <土龍> 센터

<聖 베네딕도 대 수도원 제조, 전복총판>

전주 성모병원 3층(303호) 전화 ⑥ 5587 활수산나

□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대지여관 입구)

전화 ④4989(사구광구) ⑥4988

(4)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제25대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 회장단 선출 : 회장-김상기(미카엘) 원대 행정학과 2년
부회장-정숙희(아베스) 기전여자전문대 공예과 1년
2. 제4지역 교리교사 연합회 정기총회 및 월례회-일시-11월 30일(월) 오후 5시30분, 장소-덕진 천주교회
3. 보성지역 수해의연금에 감사 : 제4지역-667,040원, 덕진부녀회-300,000원, 삼례-78,000원
문물동-의류 400점, 복자-의류 300점

(중앙)

전화 ③3651번
③3874번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중환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김병구

1. 방지거 삼회 : 11월 29일(일) 오후 2시 강당
 2. 예비고사 학생 위한 미사 : 11월 23일(월) 오후 7시 30분, 학부모님은 학생과 동반하여 이 미사에 참석하십시오
 3. 사제 위령의 날 : 11월 24일(화) 오후 7시 30분
어린 양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신 사제의 연명을 위해 다같이 기도하십시오
아침미사 없습니다. 불헌금 있습니다
 4. 청년 성가회원 모집 : 성탄 대미사를 위하여 성가회원들 모집합니다, 기간-11월 23일~12월 24일까지
시간-매월 7시부터~9시까지
 5. 축! 4지구 중·고학생 성가경연대회 최우수상 획득
 5. 중·고등학생 성가대원 모집 : 박신부님께 신청 바람
- 지난주 불헌금 : 521,832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이홍재

1. 축 견진성사 : 오늘 오전 10시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2. 베소라 성서강의 : 24일(화) 저녁 7시
주제-반역의 예고-하느님의 아들과 악마의 아들-
마르코 14장 17~21절 중심으로
 3. 성녀님들 베소라 성서특강 : 23일(월) 오후 2시~4시
 4. 금주의 성경읽기 : 주특의 제2경전-바룩서와 다니엘서 전체
 5. 성령기도회 : 27일(금) 오후 2시~4시까지
직장인들은-27일 저녁 7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불헌금 : 289,33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상임위원회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2. 각분과 계획서 제출 : 빠지지 마시고 제출바랍니다
 3. 부녀회 월례회의 : 많이 참석 바람
 4. 주일학교 어린이 많이 보내주세요
일요일 오후 8시 교리, 3시 미사
 5. 29일은 견진성사 일입니다
견진교리 23일부터 매일 저녁 7시
 6. 김용환 형제님 : M.B.W 전으로 일본 출국
 7. 진복회 월례회 : 29일 미사후
- 지난주 불헌금 : 486,4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축! 80명 견진 : 축하합니다
3. 미사시간 엄수 : 특전미사 토요일 저녁 7시, 주일 첫미사 새벽 6시, 중·고생미사 주일 오전 9시, 공식미사 주일 10시30분, 주일학교 어린이미사 오후 3시
저녁미사 7시, 월요일 어머니미사 오전 10시, 화요일 저녁 7시, 수요일 새벽 6시, 금요일 저녁 7시(젠미사)
4. 예비자 교리
주일 공식미사 후 강당 새교리실 허메테사씨 지도
화요일 저녁미사 후 보좌신부님 방 보좌신부님 지도
5. 29일은 대림일주일입니다 : 이날부터
① 혼인성사의 화려함을 금함
② 주일은 혼인성사를 일체 금함
③ 대림시기에는 오르간의 단독 독주 금함
6. 축! 혼인
최 현균, 박정옥(레레사)양 28일 오전 11시

7. 백규종(사베리오), 최영순(마리아)양 28일 오후 1시
 7. 다음주 전례 : 해설-최재명
독서-①유기순 ②정운주
- 지난주 불헌금 : 394,710, 평신도주일헌금 : 53,601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사도회 임원개편 : 사도회장-황인구
부회장-김나섭·정만성, 감사-오상팔·이정빈,
신교부장-김낙완, 전례부장-김광수, 봉사부장-김나곤,
재경부장-박형식, 상임위원-조종근·김재열·
강기호·강남준·김한기·박중갑·윤성준, 교문-
한형수·박장준 ※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2. 가정방문 : 12반-24~25일, 13반-26~27일
 3. 대입 예비고사 응시자 학생들을 위한 미사
23일(월) 저녁 7시
 4. 미납된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5.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김낙곤 ②장기호
- 지난주 불헌금 : 183,355원 교무금 : 142,500원

(숲정이)

전화 ②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주·유·③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사도회 임시회 : 11월 22일 공식미사 후
신임 사도회장단 : 사도회장-김수겸, 부회장-이규철·이은자, 감사-이철수·송용호
각 부서는 다음 발표하겠습니다
 2. 요안네 월례회 : 11월 29일 공식미사 후
 3. 성서 40주년 모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준비물-신구약 성서 지참
 4. 판공일정 안내 : 태평동 동양아파트-11월 23일(월)
진북2동 1반-24일(화), 진북1동-25일(수), 금암동-
26일(목), 진북2동 2~5반-12월 2일(화), 진북2동 3반-12월 3일(수), 이외 구역은 다음주에 계속
 5. 차주 전례담당 : 해설-정주복
독서-①김창영 ②김경주, 기도-장 삼
- 지난주 불헌금 : 298,776원

(전동)

전화 ②3222번
②6208번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병두
사도 회장 이종두

1. 가정방문 : 11월 24~27일-풍남·기타동
12월 1~4일-전동·남노송동
 2. 주일학교 2학기말 고사실시 : 11월 22일(오늘)
 3. 조선교구 150주년 기념 주일학교 웅변대회
일시-81년 12월 6일, 장소-전동성당
 4. 구역회합 : 매월 매체주 화요일 밤 7시30분
(각 구역장님과 지도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5. 대입 예비고사(24일) 응시자 합동미사
 6. 울드레야 : 11월 28일(토) 오후 8시
 7. 글라라 협회회 : 다음주(29일) 오후 1시30분
 8. 다음주(29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주, 독서-①이현재 ②범덕배
공식미사 : 해설-이규철, 독서-①장금배 ②이영태
저녁미사 : 해설-정양수, 독서-①이승호 ②임순만
 9. 글로리아 성가대 정기총회 : 28일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불헌금 : 474,42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사도회 회장단 선출 : 임원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 임원명단 게시판을 보주세요
 2. 전일 사도회 임원들을 4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 유아세례 : 다음주일 오후 2시(사무실에 연락)
 4. 교무금 : 조속한 헌납을 바랍니다
 5. 주일학교 : 어린이 출석을 관심을 갖읍시다
 6. 예비자교리 : ① 주일 10시미사 후 ② 목요일 10시
- 지난주 불헌금 : 112,225원 교무금 : 217,000원